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305호 2026년 6월 14일(가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	----	--	----	--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	--



오늘의 미사

연중 제11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독서 : 탈출기 19,2-6ㄱ ▶ 화답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2독서 : 로마서 5,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복음 : 마태 9,36-10,8
--	---

성가 ▶ 입당: 39 ▶ 봉헌: 217, 340 ▶ 성체: 170 ▶ 파견: 6



사목공지

- ① 피터 앤 폴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6월 21일, 6월 28일)
21일(일-연령회) , 28일(일-본당행사)
- ② 6월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가 없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③ 6월 봉성체 안내
6월 봉성체는 6월 18일(목, 오전) 서쪽 지역, 6월 19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④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6월 21일~27일)
- ⑤ 매월 넷째 주 6월 27일(토), 28일(일) '한끼 나눔'



사목위원회

① 2027년 예비 신자 모집

2027년 3월 27일 세례식~부활성야
교육기간 : 2026년 8월 2일~2027년 3월 27일

② 복음화 카드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 장 14 절)

※ 모든 신자가 적극 참여하시어 새 신자를 찾아 복음화 카드에 기록 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역 및 단체

① 펠시티 구역 모임

일시: 6월 14일(일) 오후 5시
문의: 김사비나 721-1055

④ 쉘렉 구역 모임

일시: 6월 16일(화) 오후 3시30분
문의: 이명노 비오 227-5630

② 카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6월 14일(일) 오후 5시
문의: 황마리아 220-0822

③ 기아모쿠 구역 모임

일시: 6월 20일(토) 오후 5시30분
문의: 김아가다 907-570-2034

③ 와이파후 구역 모임

일시: 6월 14일(일) 오후 5시
문의: 안린지 391-8347

⑥ 연령회 모임

일시: 6월 2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故김금선 우슬라 자매님이 향년 96세로(6월 3일) 선종 하셨습니다.

장례미사: 6월 16일(화) 10:30 연도: 9:30

고인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당 연도: 6월 14일 교중미사 후

■故최영자 데레사 자매님이 향년 96세로(6월 6일)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 6월 24일(수) 10:30 연도: 9:30(조의금은 사절합니다)

고인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님 영명 축일

6월 29일 월요일인 관계로 행사는 6월 28일(일) 교중미사 후에 있습니다. 신부님 영명 축일을 축하하며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적선물 용지는 예물 접수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무금 납부 안내

6월 30일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아직 교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무금은 성당 운영에 소중한 사용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공지



헌금

6월 13/14일 Diocese of Honolulu Seminarian Education Fund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6월 6일/7일: \$14,402				지난주 미사 참례자 총 258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425	\$10,910	-	\$67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STEADY AUTO 유럽차 정비 전문가 문의:808-772-2271 European car specialist

※ 미사 해설 - 성찬 전례(3) : 예물 준비에 대해서

예물 준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제단에서 사제의 모습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예물이 준비됩니다.

- *빵 봉헌 : 사제는 빵이 담긴 성반을 두 손으로 제대 위에 조금 높이 받쳐 들고 조용히 기도한다.
- *포도주 준비 : 사제 또는 부제는 성작에 포도주를 붓고 물을 조금 따르면서 속으로 기도한다.
- *포도주 봉헌 : 사제는 두 손으로 성작을 제대 위에 조금 높이 받쳐 들고 조용히 기도한다.
- *봉헌 기도 : 그 다음에 사제는 허리를 굽히고 속으로 기도한다.
- *정화 예식 : 이어서 사제는 제대 한쪽으로 가서 손을 씻으며 속으로 기도한다.
- *성찬례로 초대 : 사제는 제대로 가서 교우들을 바라보고 팔을 벌렸다 모으면서 말한다.

① 빵 봉헌 : 동·서양의 차이가 있지만, 서양에서 빵은 기본적인 것,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느님 제단에 인간의 필수적인 것을 봉헌함으로써 이 제사가 우리와 별개의 것이 아닌, 우리의 봉헌물로 이루어지는 제사가 되게 하고, 나아가 이 제사를 통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이 행위를 통해 전달됩니다. 특히 사제가 빵을 들어 올리고 기도하는 행위는 하느님을 향한 “봉헌과 감사”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② 포도주 준비 및 포도주 봉헌 : 포도주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거쳐 교회의 중요한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최후의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들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신 후부터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도주 준비와 포도주 봉헌 역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③ 봉헌 기도 : 미사 중에 사제가 바치는 기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주례 기도와 사적 기도입니다.

주례 기도는 전례를 집전하는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와 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 바치는 공적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주로 소리를 내어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 공동체를 대표하여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와 달리 사적 기도는 주례가 자신의 봉사 직무를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바치는 기도로써 언제나 침묵 중에 바칩니다.

특히 예물 준비 중 조용히 바치는 “주 하느님,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어, 오늘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기도는 빵과 포도주 봉헌 이후, 이어질 성찬례를 주 하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 주십사 청하는 기도입니다.



알아돕시다

※ 연중 11 주일 강론 요약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 그리고 파견이라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픔을 알고 계셨으며, 그들을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의 백성, 곧 "사제들의 나라"와 "거룩한 민족"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시련은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신앙과 구원으로 이끄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드러났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새로운 탈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당신께 다가오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 지쳐 있는 군중을 보시고 깊은 연민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열두 사도를 부르시는데,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과 믿음, 구원의 은총을 거저 받았으므로, 이제 사랑과 용서, 위로와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경청, 화해, 기도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러가야 하는 선물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거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광야와 각자의 이집트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제들의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피아노 개인 레슨 모든 연령대 레슨 가능 문의:허은혜 레지나 401-871-2681 Lynnpiano123@gmail.com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